

목걸이 찬 남성 MRI에 빨려가 사망

자성, 휠체어 날릴 정도...“발이 들린 채 순식간에” 보도도

뉴욕의 한 MRI 클리닉에서 아내를 따라 검사실에 들어간 남성이 목에 걸고 있던 금속 체인이 MRI 기기에 끌려가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6일 롱아일랜드 웨스트버리에 있는 나소 오픈 MRI 클리닉에서 일어났다. 사망자는 61세 남성으로, 무릎 MRI 검사를 받는 아내와 함께 이곳을 찾았다.

현지 매체 뉴스 12 롱아일랜드에 따르면 아내는 MRI 테이블 위에서 무릎 검사를 받던 중 “나 좀 일으켜줘” 라고 남편을 불렀다. 남편은 당시 20파운드(약 9kg) 무게의 금속 체인을 목에 걸고 있었으며, MRI를 조작하던 기술자가 그를 검사실로 들여보냈다.

방에 들어선 남편은 MRI의 강력한 자기장에 체인이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면서 함께 기기에 끌려갔다. 일부 매체는 남편이 발이 들린 채 끌려갔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남편이 곧바로 중태에 빠졌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후 다음 날 사망했다고 밝혔다. 아내는 “기계가 남편을 덩석 잡아 끌어당기는 걸 봤다” 며 눈물을 흘렸다. 아내는 직원들에게 “이 기계를 당장 꺼달라” 고 외쳤지만, 결국 남편은 아내의 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식품의약국(FDA)은 MRI의 안전성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MRI 검사실에 들어오는 사람과 물품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국립생체의공학연구소(NIBIB) 역시 MRI가 철, 강철 등 자성을 가진 물체에 ‘매우 강력한 힘’ 을 가해 휠체어를 방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날려 보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번 사고는 뉴욕에서 MRI로 인한 첫 사망 사례가 아니다. 2001년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한 의료센터에서는 산소통이 MRI 기기로 빨려 들어가면서 6세 소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노스쇼어대학교병원 영상의료 서비스 책임자인 찰스 윈터펠트는 “산소통이나 휠체어, 자성을 띤 장신구를 착용한 사람에게 MRI는 특히 위험하다” 며 “금속이나 전자 기기는 촬영 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그는 “금속 물체는 마치 어뢰처럼 기계 중심부로 빨려 들어간다” 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뉴욕에서 MRI로 인한 첫 사망 사례가 아니다. 2001년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한 의료센터에서는 산소통이 MRI 기기로 빨려 들어가면서 6세 소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한 달 물값이 568달러

증가주 디아블로 그란데 단수 위기에 300% 인상



증가주 디아블로 그란데 주민들이 월 145달러에서 568달러로, 약 300% 오른 물값을 내게 됐다. 주민들은 당장 단수가 될 위기 앞에 요금 인상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인상은 7월 1일부터 발효됐으며, 7월 말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커니 카운티 수자원청(KCWA)은 디아블로 그란데의 물서비스를 관리하는 웨스턴 힐스 지구가 연간 8,000 에이커피트의 물 할당량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디아블로 그란데는 1990년대 초 고급은퇴자 마을로 1만 가구를 계획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개발사가 파산했고 이후 다른 개발사가 2,000만 달러에 인수했지만 재정난이 계속됐다.

이전 개발사가 마지막으로 물값을 낸 것은 2019년이었으며, 이후 2020년부터 주민들이 직접 물서비스를 운영하면서 1,300만 달러 이상의 부채를 떠안았다.

일부 이사들은 월 기본요금을 450달러로 낮추자는 제안도 했지만 표결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다. 다른 이사들은 만약 인상을 적게 하면 적자를 매우지 못해 다시 요금 인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568달러는 운영비와 인프라 유지비를 반영한 요금 조사를 근거로 산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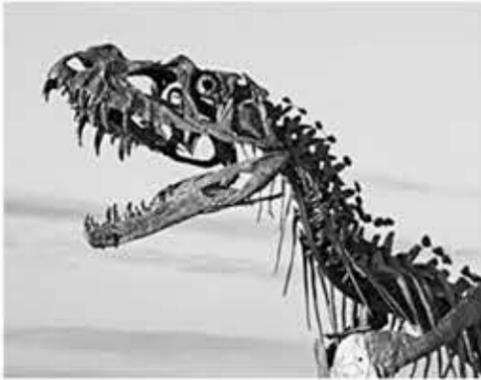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주민이나 주말주택 소유자들은 매달 568달러의 물값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주민 리더아 스튜어트 씨는 ABC10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딱 이 정도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곳을 선택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큰 금액을 떠안게 될 줄은 몰랐다” 고 걱정했다.

사진=shutterstock

공룡 화석, 3,050만불에 팔렸다

전세계 하나 희소성...예상가 5배

1억5,000만년 전 공룡 화석이 유타주의 고생물학과와 경매 시장을 뒤흔들었다. 유타주 리하이에 위치한 ‘뎅스기빙 포인트 고생명 박물관’에 전시돼 있던 어린 케라토사우루스 화석이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3,050만 달러에 낙찰된 것이다.



▲ 3,050만 달러에 낙찰된 케라토사우루스 화석. 사진=sothebys.com

이 화석은 전 세계에 단 4점밖에 존재하지 않는 케라토사우루스 골격 중 유일한 어린 개체로, 6피트(약 1.8미터) 높이에 11피트(약 3.35미터) 길이를 자랑한다. 경매 이전 평가액은 400만~6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낙찰가는 그 5배를 넘어섰다.

소더비의 경매사 필리스 카오는 경매장에서 “이것은 고고학 경매 시장에 나온 화석 중 가장 희귀하고 중요한 표본 중 하나입니다. 매우 정교하게 보존, 조립됐습니다” 라고 소개했다.

개했다.

화석은 와이오밍주의 역사적인 ‘본 케빈 채석장’에서 발견되었으며, 유타 카운티에 본사를 둔 화석 전문 기업 파실로직이 소장하고 있었다. 이 기업의 창립자 브룩 시슨은 어릴 적 이 화석을 리하이 박물관에 전시할 때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이후 이 화석을 인수한 시슨은 직접 뼈 하나하나를 맞춰 이번 경매에 내놓았다. 그는 “두개골을 조립하는 데만 두 달 반이 걸렸다” 고 밝혔다.

이번 낙찰가는 공룡 화석 경매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유타주 고생물학자 제임스 커클랜드 박사는 불법은 없었다면에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 프로그램에 2,600만 달러만 지원됐어도, 수십 개의 이름 없는 공룡을 발굴할 수 있었다” 라고 말했다.

시니어 메디칼 무료 신청 및 관리

65세 이상 메디칼 신청 도와드립니다.

- 자산 폐지로 인한 메디칼 자격 쉬워져
- 인컴으로만 메디칼 신청 가능
- 배우자 중 한 사람만 싱글 메디칼 신청 가능
- Share of Cost 분담금 삭제 신청

이제 메디칼 신청 / 메디칼 서류 관리를 하나로! 매주 목요일 부에나팍 오피스에서 상담드립니다.

2025년

시니어 메디칼 자산제한 폐지!

*** 65세 이상 보유 재산 규정 없애 *** 인컴 조건만으로 메디칼 신청 가능!



KCSS 시니어 서비스 213.220.6620 / 323.628.5376